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0-4번지 Tel. 051)607-6041~7  
#840-4, Daeyeon 4-Dong, Nam-Gu, Busan.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1-31번지 Tel. 051)630-5200  
#831-31, Beomil 2-Dong, Dong-Gu, Busan



**을숙도문화회관 EulSukDo Cultural Center**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4 / Tel. 051)220-5801  
#1151-14, Hadan-Dong, Saha-Gu, Busan



**경성대학교 KyungSung Univ.  
콘서트홀/예노소극장/ 멀티소강당  
Concert Hall / Yeno Hall / Multimedia Hall**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110-1 경성대학교 Tel. 051)663-5361,3  
KyungSung Univ. #110-1, Daeyon 3-Dong, Nam-Gu, Busan



**용천지랄소극장 Culture Alley Yongcheon Jiral Theater**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2-4 문화골목 Tel. 051)625-0767  
Munhwa Gollmok(Cultural Street) #52-4, Daeyeon 3-Dong, Nam-Gu, Busan



※ 제8회 부산국제연극제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p91참조)

PERFORMANCE  
**BIPAF OPEN**  
부산국제연극제 컨셉 이외의 해외 및 국내 우수초청작품

The performances fall outside of the theme of the 8th Annual BIPAF, "Love & Harmony", and are invited to participate hail both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 수동과 두통

## Passivity and Headache

한국  
댄스씨어터 창

5월 2일(월)~3일(화)  
월~화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70분  
15세 이상

Korea  
Dance Theater Chang  
May 2nd (Mon) 18:00  
3rd (Tue) 18:00  
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  
70MIN  
Rated PG - 14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무대를 휘어잡는 역동적인 몸짓!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세계 17개국의 유명 페스티벌에서 초청공연을 가진  
무용가 김남진의 야심작 <수동>과 <두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

### <Part1. 수동> 2010년 AK21 국제 안무가 육성공연 최우수상 수상작

이 작품에는 실물크기의 인형이 등장한다. <수동>에서 움직임의 주요오브제는 '마네킹의 몸' 이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의 힘에 의해서만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마네킹의 몸을 바로 '현실의 우리'로 대변하고자 한다. 이 인형은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어 무용수들과 각각 기괴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작품에 등장하는 무용수들은 이 인형을 활용하여 인간의 공격성과 강자의 지배, 세상의 폭력과 약자의 피해 등을 춤으로 언어화하고 있다.

### <Part2. 두통> 흔들리는 세상에도 신은 존재하는가?

'머리가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흔들리는 땅은 내 집도, 내 가슴도 무너뜨렸다.' 아이티 지진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된 <두통>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깊숙한 고통의 이유에 대하여 '도대체 왜?' 인지 계속하여 묻는다. 무대를 채우는 처절한 몸짓을 통해 나약하지만 그래서 아름답고 순수한 인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 관객과의 대화 : 5월 2일 (월) 18시 공연 후

안무 : 김남진 / 연주 : 박우재 / 음향감독 : 전광표 / 조명 및 무대디자인 : 이재성  
출연 : 김남진, 박우재, 용혜련, 최우석

## 수동과 두통

### Passivity and Headache

Dynamic motion on stage grabs hold of the audience's attention!  
Busan audiences have the great opportunity to encounter Kim Namjin's ambitious works,  
<Passivity and Headache>, previously performed at well-known festivals  
in 17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France, England and Italy.

### <Part 1. Passivity>

<Passivity> depicts people's powerlessness in modern society by manipulating those on stage with invisible thread. We live in a world where the strong prey upon the weak, where there are world powers and where there are to be weak nations. This performance likens the situation to three dancers and one doll. The dancers express domination by the strong. Violation of the world is conveyed in the doll's passive motions.

### <Part 2. Headache>

Disillusioned by this discrepancy of power and suffering, <Headache> questions the core of existence, more than just the systems that exist to perpetuate it. Does God exist? If He does, why does God remain on the sidelines in the face of tragedy?

### ■ Q&A Session : May 2nd (Mon) 18:00 After the performance

Choreographer : Kim Namjin / Music Director : Park Woojae / Sound Director : Jeon Kwangpyo / Lighting&Stage Director : Lee Jaesung  
Performer : Kim Namjin, Park Woojae, Yong Hyeryun, Choi Woo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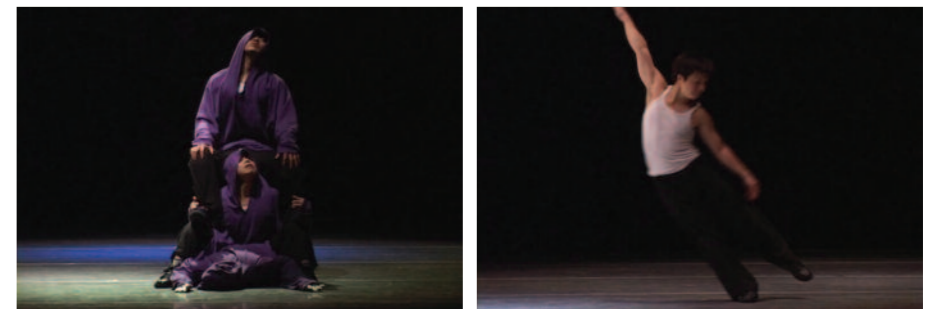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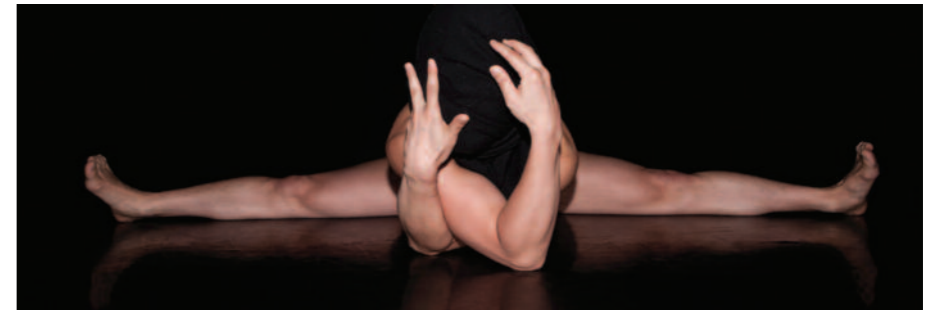
연출의도

〈Part1. 수동〉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여길 난 견딜 수가 없어  
난 너무나 화가 나  
더 이상 너희의 인형이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를  
언제까지 지배하려  
종이로 만들어지는 위태로운 왕국과 명예롭지 않은 왕관  
모두가 병들었어도 아프지 않을 능력과  
눈과 귀를 가리고서 입을 틀어막을 권리  
뭘 더 얼마나 원해  
얼마나 누가 더 눈물을 흘려야 해  
영원할거라 믿겠지  
종이로 만들어지는 위태로운 왕국과 명예롭지 않은 왕관  
모두가 병들었어도 아프지 않을 능력과  
눈과 귀를 가리고서 입을 틀어막을 권리  
- Taru '취색귀, 녹색눈' 중에서

〈Part2. 두통〉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이라는 생각하는 동물을 만들어놓고  
신은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연이란 거대한 이름으로  
왜 이렇게도 많은 아픔을 이 약한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가?  
도대체 신은 왜  
이렇게 순수한 인간들에게 이리도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가?  
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순수하기에 서로 속이고..  
너무나 나약하기에 서로 싸우고..  
너무나 사랑하기에 서로 죽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천륜을 배반하는..  
오늘의 이 아름다운 인간들 위에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머리가 아프다  
- 아이티 지진을 생각하며



# 칸타빌레

## Cantabile

### 한국

춤패 연분 흥

5월 2일(월)~3일(화)

월~화 20: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60분

7세 이상

### Korea

Yeunbunhong

May 2nd (Mon) 20:00

3rd (Tue) 20:00

Small Hall,  
Busan Cultural Center

60MIN

Rated PG - 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몸이 기억하는 무의식의 춤사위, 안무가 “임현미”가 펼치는 춤의 세계  
순수했던 과거를 흥얼거리며 노래하듯 춤추다!

커가며 잃어버린 순수에 대한 동경을 춤추는 시간, 그리고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믿었던 아련한 옛 추억을 회상하며 딱딱한 일상 속에서 풋풋했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는 시간, 작품 <칸타빌레!>  
안무가 임현미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이 짐들을 무대 위에 하나씩 풀어놓고자 한다.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렸던 그 시절의 나를, 꿈을 꿀 수 있어서 더 없이 행복했던 그 때의 나를 회상하면서...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투명하리만치 순수했던 그 시절 속으로 들어가 몸이 기억하는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살아갈 힘은 바로 여기에서 찾게 될 것이라고 관객들에게 말하고 있다.

어릴 적 무심으로 진심을 노래한 것처럼 몸으로 노래하는 시간, 작품 <칸타빌레!>

■ 관객과의 대화 : 5월 3일 (화) 20시 공연 후

안무가 : 임현미 / 연출 : 김미현 / 설치미술 : 백철호 / 사진 : 이장수 / 영상(비주얼) : 장희철 / 조명 : 이동진 / 대본 : 최찬열  
음향 : 김수현 / 무대감독 : 이주영 / 홍보, 기획 : 정경은 / 진행보조 : 조희정, 김유하, 김수연  
출연 : 임현미, 신승민, 이혜수

## 칸타빌레

### Cantabile

Only relying on the imprint scripted in the fibers of the body,  
the movement is automatic and the dance is natural!

The dancers sing a hymn in movement about the pure days of the past gone by.  
Along with Yeunbunhong Theater Group, we must pause convention, routine, and stress of "the everyday"...  
Let's return to an innocence that allowed us to freely believe a dish would run away with a spoon...

■ Q&A Session : May 3rd (Tue) 20:00 After the performance

Choreographer : Lim Hyunmi / Director : Kim Mihyun / Setting : Baek Cheolho / Photo : Yi Jahngsu  
Video Designer : Jang Heechul / Lighting : Lee Dongjin / Playwriter : Choi Chanyeoul / Sound : Kim Suhyun  
Stage Director : Lee Zooyoung / General-PR Manager : Jeong Kyeongun / Assistant : Cho Heuijeong Kim Yuha Kim Sooyeoun  
Performer : Lim Hyunmi, Shin Seung min, Lee Hyesu



## ■ 연출의도

몸의 무의식을, 순수 과거를 흥얼거리며 노래하듯 춤으로  
어릴 적 노래를 흥얼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말도 되지 않는 노래를 지어 불렀지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노래 소리에는 그 시절의 행복과 불안, 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던 것을 그만두게 된 것이 몇 살 즈음인지 도대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어린 시절, 순수와 꿈을 가지며 희망과 애착을 더불어 가졌으며, 성장하면서 “쉽지 않다”와 함께 책임을 짊어지  
며 신념 또한 커졌습니다. 신념은 많은 벽을 넘어서게 했으며 두려움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  
를 소유하면서 소중함과 상실과 집착도 알아버렸고, 놓아두는 법도 아주 조금 배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짐  
보따리들은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왔습니다. 이제 보따리들을 하나씩 풀어서 다시금 몸에 담습니다.  
어릴 적 무심으로 진심을 노래한 것처럼 몸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보따리들을 풀다 풀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칸타빌레 : 이탈리아어로 악보에서 “노래하듯이” 연주한다는 뜻.

## ■ Motive

The body moves instinctively in a dance that tells of a pure and innocent past.  
I remember humming songs, outlandish songs, molded from pure imagination. Those songs were filled with happiness,  
anxiety and dreams of that time. When did my free spirit lose its voice?

Time passed...  
A younger version of myself drifted into dreams often; I was a hopeful child. As I grew, I acquired more and more re-  
sponsibility learning how difficult it is going through this life. In meeting these challenges, I've developed faith: faith in  
myself, faith in the world, faith in existence. Faith has made me less scared of the uncertainties in life; I am a better  
person for this. I've grown to value the company of others; at times, my efforts to maintain it broaches on obsession.  
Therein lies another lesson: learning to let go. All of these experiences culminate into the whole of me.

# Cantabile : An Italian word describing the style of playing music slowly and freely, as if “to seem like singing.”



# 캡스 COPS

스페인

Catalan Company

5월 2일(월)~3일(화)  
월 18:00, 화 20:00

경성대 콘서트홀

55분  
7세 이상

Catalonia

(Located in Northeast Spain)

Catalan Company

May 2nd (Mon) 18:00  
3rd (Tue) 20:00

Concert Hall,  
Kyungsung University

55MIN  
Rated PG - 6



경찰이 되고 싶은 광대들의 몸부림.  
관객들을 다 용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광대들의 경찰 도전기~!!

어리숙한 광대들이 경찰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COPS>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호흡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작품으로, 객석에서의 사격 훈련, 강도들이 등장하는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 마약용의자 심문 장면 등 여러 에피소드를 무대 위에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벌이는 퍼포먼스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극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오세요, 몸으로 웃겨드립니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2일 (월) 18시 공연 후

연출 : Alex Navarro and Caroline Dream / 조명 : Jordi G. Rexach / 음향 : Robert Riu / 의상 : Jaume Jové

출연 : Ferran Aixalà, Jordi Huete, Jaume Jové

캡스  
COPS

Clowns struggling to be cops- they're taking slapstick to the streets.

<COPS> is the anti-CSI; no high-tech forensics, no legalese jargon, no David Caruso playing peek-a-boo with his shades. However, the endless supply of prime-time cop shows provide more than enough inspiration for this parody, complete with their own "ginger" on cast to give Caruso a run for his money.

Diving head first (sometimes literally), into the hardboiled world of law enforcement, Catalan Company has created a comedic gem that finds hilarity in some unlikely situations. These clowns' wacky antics turn all audience members into suspects.

<COPS> is an hour of laughs that reminds us: crime may not pay, but it does make us laugh!

■ Q&A Session : May 2nd (Mon) 18:00 After the performance

Director : Alex Navarro and Caroline Dream / Lighting : Jordi G. Rexach / Sound : Robert Riu / Costume : Jaume Jové

Performer : Ferran Aixalà, Jordi Huete, Jaume Jové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 못말리는 장의사 HUMORTAL

스페인

Catalan Company

5월 4일(수)~5일(목)  
수 20:00, 목 16:00

경성대 콘서트홀

60분  
7세 이상



Catalonia  
(Located in Northeast Spain)

Catalan Company

May 4th (Wed) 20:00  
5th (Thu) 16:00

Concert Hall,  
Kyungsung University

60MIN  
Rated PG - 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장의사들, 관객들을 웃겨 죽이다?”  
네 명의 장의사들이 관을 채우기 위해 펼치는 쇼!

장의사들의 실업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시신을 땅에 묻지 않는다. 시신을 화장하는 요즘 이 시대에 장의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관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시신들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도시는 최고의 장소이며, 후보자들도 많다. 웃겨 죽여서라도 시신을 만들겠다는 이들의 탐색은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작품 (HUMORTAL)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네 명의 장의사들이 관을 채우기 위해 펼치는 쇼이며, 웃겨 죽이는(!) 유머(Humor)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5일 (목) 16시 공연 후

연출 : Alex Navarro and Caroline Dream / 의상 : Maria Cucurull

출연 : Oriol Aubets, Ferran Aixalà, Jordi Huete & Jaume Jové

못말리는 장의사  
HUMORTAL

Funerals plus dying industries equals... a comedy?  
It does in the case of Humortal, a clown and gestural humor performance that aims to put “fun” back into funerals.

Society is making the switch from burial to cremation; what can undertakers do for a living now? They need a dead body to keep them working. A large, busy, metropolitan city is the perfect place to find (unsuspecting) candidates to fill up their coffin. That's where we meet the performers of <HUMORTAL>, roaming the streets on a hunt for a stiff. Those streets can be anywhere they decide to start a performance- including the various pedestrian- heavy hotspots of Busan!

As an audience member, consider yourself warned: you will die laughing!

■ Q&A Session : May 5th (Thu) 16:00 After the performance

Director : Alex Navarro and Caroline Dream / Costume : Maria Cucurull

Performer : Oriol Aubets, Ferran Aixalà, Jordi Huete & Jaume Jové

INTERVIEW

Q “이 작품들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A <캡스>는 단순히 경찰영화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웃긴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었을 뿐이죠. <못말리는 장의사>도 <캡스>와 마찬가지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어렵거나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Q Purpose or Intention of your shows.

A <COPS>is just a parody on police movies. It’s just a fun performance with no other intention than amusing the audiences with good physical humor. <HUMORTAL> has that goal, too, but also to make us think that death should not be taken that seriously and should not be afraid of it.

Q 투어 공연을 하거나 이 쇼를 준비하던 도중 일어났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아르메니아의 한 마을에서 <못말리는 장의사> 거리공연을 하는 도중 늘 그렇듯 관객 중 한 사람을 관 속에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그 마을의 장의사였어요!

그리고 <캡스> 투어 당시 공항에서 미국 경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총을 두고 왔고 뉴욕에서 장난감 총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뉴욕에서는 장난감 총이 금지되어 살 수가 없었고, 정작 진짜 총은 금지된 것이 아니었던 거죠!

Q Are there any particularly memorable or funny moments when you produced these shows?

Were there any funny episodes that occurred while touring with these shows?

A <COPS> : Assuming that we would find toy guns in New York, we left our prop guns at home not to have problems with the US police at the airport. Turns out, you cannot buy toy guns in New York: they are forbidden! However, real ones are not!

<HUMORTAL> : Once we were performing on the streets of a village in Armenia. We took someone from the audience and we put him inside the coffin, as we normally do. After the performance we discovered that that man coincidentally happened to be the official undertaker of the village.

Q <캡스>와 <못말리는 장의사>가 아시아에서 공연된 적이 있나요?

A <캡스>는 총 50회 정도의 공연을 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처음입니다. <못말리는 장의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아르메니아에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Q Are these two shows premiering in Asia with the 2011 BIPAF, or have they already been performed in Korea?

A We have performed <COPS> about 50 times but it is premiere in Asia this time. <HUMORTAL> has been to Ansan Street Arts Festival in Korea and in Armenia.

- 극단 Catalan Company와의 일문일답 中





# 띠용이와 떠나는 환경캠프

## Ddiyong, Into the Nature

한국

현대인형극회

5월 3일(화)~4일(수)  
화 14:00, 수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50분  
전체 관람가

Korea

Hyundai Puppet Theatre

May 3rd (Tue) 14:00  
4th (Wed) 11:00

Small Hall,  
Busan Citizen's Hall

50MIN  
G - Rated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살아 움직이는 재활용 인형 친구들과 떠나는 멋진 환경 캠프!  
신기한 블랙라이트 퍼포먼스,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가족 인형극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재활용, 의인화 작업을 거쳐 인형친구들로 재탄생시킨 작품, <띠용이와 떠나는 환경캠프>는 관객으로 참여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환경 캠프를 떠나게 된다. 신나는 캠프 같은 공연을 통해 아이들은 주위에서 간과하였던 사물들의 존재를 하나하나 소중한 인형친구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 자원을 아껴 쓰고 다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교육과 즐거움의 동시 만족, 그리고 공연을 보는 어른과 아이의 동시 만족,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작품 <띠용이와 떠나는 환경캠프>는 인형의 기술적인 부분과 흥겨운 댄스 콘서트를 접합시켜 만든 유니버스 형식의 인형극이다.

연출 : 조윤진 / 예술감독 : 조용석

출연 : 조용석, 조윤진, 최순이, 문은정, 전미현, 연진아

## 띠용이와 떠나는 환경캠프

### Ddiyong, Into the Nature

A cool environmental camp with recycled puppets!  
Marvelous black light performance composed of music with family in mind.

<Ddiyong, Into the Nature> gives center stage to an issue relevant to those young and old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e environment. The moral of Ddiyong is brought to life through the puppets themselves. Inspiring through example, the <Ddiyong, Into the Nature>'s creators made their "actors" entirely of recycled materials.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an be inspired to "go green" in this playful atmosphere set to electrifying music.

Director : Cho Yoonjin / Artistic Director : Cho Yongsuk

Performer : Cho Yongsuk, Cho Yoonjin, Choi Soonyi, Moon Eunjeong, Jun Mihyun, Yeun J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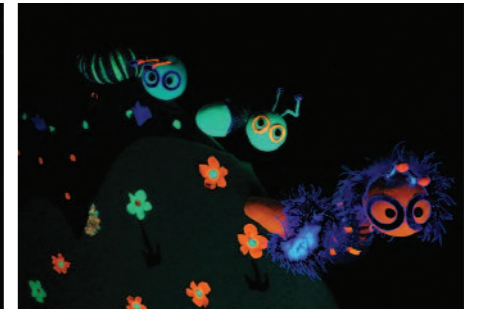
■ 줄거리

특수 조명을 이용하여 손과 발 머리만 보이는 성훈이의 등장으로 막을 연다. 바쁜 학원 일정에 시달리던 성훈이는 엄마로부터 신나는 환경 캠프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성훈이는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관객들을 띠용이 캠프로 이끈다. 역시, 캠프에 참여한 띠용이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다. 하지만 띠용이가 버린 음식물들은 쓰레기들로 몸이 점점 커지는 쓰레기 괴물에게 하나둘씩 사라지고 이 쓰레기들로 몸이 점점 커지게 된 쓰레기 괴물은 띠용이마저 잡아먹으려고 한다. 하지만 곧 꿈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띠용이는 다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 Synopsis

We meet Ddiyong, the main character of the puppet show production by the same name, at an eco-camp for kids. Ddiyong is far from a model camper, guilty of mindlessly making waste. What starts as a little bit of food waste results in a Garbage Monster! The Garbage Monster preys on the children that helped create it- including Ddiyong!

Much like the imprint we make on our own environment, perpetrators inevitably become the victims of their own actions. Fortunate for Ddiyong, it's all just a terrible dream. Having survived the horror of the Garbage Monster, he has learned that the best remedy is prevention.



# 할머니의 낡은 창고

## The Grandmother's Old Storage

한국

자파리 연구소

5월5일(목)~7일(토)

목 11:00, 14:00

금 16:00 토 10:00, 16: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50분

4세 이상

Korea

Japari Research Institute

May 5th (Thu) 11:00, 14:00

6th (Fri) 16:00

7th (Sat) 10:00, 16:30

Small Hall,  
Busan Citizen's Hall

50MIN

Rated PG - 3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어른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아빠의 그림 일기장과 함께 떠나는 추억여행

〈할머니의 낡은 창고〉는 자파리연구소의 두 번째 창작극으로, 팝업 그림책을 모티브로 하여 독특한 무대 세트를 제작하고, 기발하고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상상과 동심의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내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연히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아빠의 어린 시절로 추억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통해, 아빠, 엄마의 어릴 적 모습들과 70, 80년대를 살아온 아이들이 꿈꾸던 것들, 가난했지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6일 (금) 16시 공연 후

연출 : 오경현 / 스태프 : 이경준, 박상덕

출연 : 성민철, 최은미, 조은

## 할머니의 낡은 창고

### The Grandmother's Old Storage

Imagination and creativity for kids; sweet memories for adults!  
Flipping through the pages of Dad's diary, fall into the memories.

Opening the pages, the audience along with Hobum and Suzie, will fall into the stories of their dad's past and begin an enchanted journey into his childhood that has gone quietly undiscovered- until now...

Not only for children, whole families can enjoy this performance with many creative props and set designs inspired by a pop-up cartoon book. With every page flipped, nostalgia from your childhood will become interwoven with the memories-in-progress of your own children, strengthening the love and bond between the two generations.

■ Q&A Session : May 6th (Fri) 16:00 After the performance

Director : Oh Kyunghun / Staff : Lee Kyungjoon, Park Sangdeok

Performer : Sung Minchul, Choi Eunmi, Cho Eun



■ 줄거리

열 살의 호범이와 일곱 살 수지, 그리고 사촌 영심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댁에 놀러 간다. TV에선 재미있는 것도 안하고, 컴퓨터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심심해진 아이들은 할머니가 잠든 사이, 할머니의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할머니의 결혼사진,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사진 등 오래된 물건들을 발견하며 킁킁 거리던 아이들. 그곳에서 아이들은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일기장을 발견하고, 아빠의 추억이 담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 Synopsis

Hobum, a 10 year-old boy, his younger sister Suzie, and their cousin, Youngsim, visit their grandmother's house in the countryside. Lacking amusement, they sneak into their grandmother's old storage after she has fallen asleep.

The storage is dusty and filled with relics of the past. Tucked away in a small corner, the children happen across the old diary of Hobum and Suzie's dad. Unbeknownst to them, their father's childhood years in the 1970s-80s were a time filled with poverty. Regardless, he led a very happy life created out of love shared between his family and community.



# 이별의 부산정거장

## Goodbye at Busan Station

한국  
극단 마루

5월 7일(토) ~ 8일(일)  
토~일 1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  
90분  
12세 이상

Korea  
Theater MARU

May 7th (Sat) 18:00  
8th (Sun) 18:00

EulSukDo Cultural Center  
90MIN  
Rated PG - 11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대중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모티브로 한 가족사의 희로애락.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창작악극”

추억의 극단이 돌아왔다!

눈물과 웃음, 감동을 함께 선사할 작품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별의 부산정거장” 노래를 모티브로 하여 가족 간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과정을 구수한 사투리와 흥겨운 노래, 춤사위로 표현한다. 극중 광대들의 신명나는 춤과 노래가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대사 하나하나가 눈물과 감동을 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가슴 밑바닥에 묻어 둔 아련한 향수에 대한 동경과 추억 속으로 관객들을 안내할 것이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7일 (토) 18시 공연 후

작연출 : 박현배 / 드라마트루기 : 이훈주 / 조연출 : 박홍석 / 기획 : 김순자 / 조명감독 : 하성철 / 조명 : 정순원  
음악감독 : 김보라, 노형우 / 연기지도 : 정대찬 / 분장 : 손자영 / 의상 : 이경진 / 소품 : 전아름  
출연 : 양성우, 이정민, 이재욱, 김해린, 강철웅, 김미란, 윤태홍, 최종문

# 이별의 부산정거장

## Goodbye at Busan Station

Inspired by famous Korean pop song, "Busan Station: Where We Part Ways",  
<Goodbye at Busan Station> plays out one family's joy, anger, pleasure, and sorrow.

Particularly poignant for local audiences, it plays on the nostalgia of Busan life including use of the local dialect. Nowadays, Geumsoon runs a pub, but in her youth ran away to join the traveling theater company. She reminisces about her days as a talented actress, most famously having played the lead of Soonni in <Goodbye at Busan Station>. Constructed as a play within a play, <Goodbye at Busan Station> harkens back to a lost art.

■ Q&A Session : May 7th (Sat) 18:00 After the performance

Playwriter & Director : Park Hyunbae / Dramturgy : Lee Heunju / Assistant Director : Park Hongseok / General Manager : Kim Sunja / Lighting Director : Ha Sungchul / Lighting Staff : Jeong Sunwon / Sound Director : Kim Bora, Noh Hyeongu / Acting Director : Jeong Daechan / Make-up Designer : Son Jayeong / Costume : Lee Gyeongjin / Properties : Jeon Areum  
Performer : Yang Seongu, Lee Jeongmin, Lee Jaeuk, Kim Haerin, Kang Cheolung, Kim Miran, Yoon Taeheung, Choi Jongmun



■ 작품의도

광대를 앞세운 악단과 연기자들이 온 마을 구석구석을 떠돌며 만든 밤이면 마을 너른 공터 천막에서는 한바탕 춤과 노래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이 시작됩니다.

비록 맨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보아야 했지만 무대에 오른 사회자의 한 마디에 울고 웃고, 가수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에 흥을 더하고 연기를 펼치는 배우들의 몸짓 하나, 대사 한마디가 심금을 울렸던 유랑극단. 시대가 변하면서 이 유랑극단은 사라졌지만 이 땅 민중들에게는 문화의 전령사였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대중 문화예술의 패턴이 바뀌면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전무한 가운데 "악극"이 문화소비에서 항상 뒷전이었던 그들을 문화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가슴 밑바닥에 묻어 둔 아련한 향수에 대한 동경과 추억 때문일 것입니다.

악극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대중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모티브로 한 가족사의 희로애락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 용서, 화해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창작악극"의 새로운 패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Motive

Long ago, theater companies were little more than a clown and band bouncing from small village to village. They were simple in their production, yet captivated audiences with singing and dancing, bringing them deep into another world of varying emotions. Though lost over time, these traveling companies were responsible for carrying culture throughout the country. Baby Boomers have emerged as key patrons of theater because for them, entertainment is none purer than a player, a band, and grateful audience waiting to be carried away. <Goodbye at Busan Station> will provide nostalgic moment for you.





# 게와 그녀와 이웃 일본인

## A Crab, a Woman and her Japanese Neighbor

한국, 일본  
극단 청우 &  
홋카이도연극재단 TPS

5월 8일(일) ~ 9일(월)  
일 16:00, 월 20:00  
경성대 콘서트홀  
90분  
12세 이상

Japan, Korea  
Chungwoo&TPS  
May 8th (Sun) 16:00  
9th (Mon) 20:00  
Concert Hall,  
Kyungsung University  
90MIN  
Rated PG - 11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 홋카이도연극재단 TPS & 국내 극단 청우의 “공동제작공연” “무언가(無言歌)”와 함께 들려주는, 이웃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 그리고 일본과 한국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국경을 넘은 '하모니!' 멘델스존, 차이코프스키의 무언가(無言歌)를 배경으로 사람과 사람 마음의 교류가 웃음과 함께 펼쳐진다. 홋카이도 삿포로를 배경으로 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 이웃이 되어 펼치는 이야기로,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테마로 하고 있다. 2009년 국내 극단 청우와 홋카이도연극재단 전속극단 TPS(Theater Project Sapporo)의 지속적인 교류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일본의 5개 도시의 순회공연을 통해 친근감이 있는 내용과 일본과 한국 배우들의 국경을 넘은 하모니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 ■ 관객과의 대화 : 5월 9일 (월) 20시 공연 후

작 : 사이토 아유무 / 연출 : 김광보 / 조연출 : 강민영 / 무대감독 : 오자키 카나메 / 조명 : 정재성 / 음향 : 김진희  
무대 스태프 : 이사지 유미코 / 자막 : 기무라 노리코 / 프로듀서 : 히라타 슈지  
출연 : 이승주 / 이도우 / 미야타 케이코 / 다카코 미쿠 / 사토 켄이치 / 기무라 히로쓰구  
후원 : 일본문화청 홋카이도문화재단

## 게와 그녀와 이웃 일본인

### A Crab, a Woman and her Japanese Neighbor

### “Collaborative Performance” between Japanese theatre company, TPS, and Korean theater company, Chungwoo. With “Song Without Words”, <A Crab, a Woman and her Japanese Neighbor> tells of the love and affection between neighbors.

<A Crab, a Woman and her Japanese Neighbor> is a perform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theater company, Chungwoo, and Hokkaido Theater Foundation's Theater Project Sapporo (TPS), first forged in 2009. The play has toured around Northern Japan including stops in cities: Sapporo, Kiyota, Asahikawa, Kushiro and Iwamizawa. It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for enacting the commitment to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powerful neighbors. The story plays out with understated humor and charm, deciphering its theme of "jeong": the attachment and connectivity that forms our relationships, whether intentional or serendipitous. Additionally, Mendelssohn and Tchaikovsky's soundtrack will leave a deep impression.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in the fiscal 2011 and Hokkaido Arts Foundation

#### ■ Q&A Session : May 9th (Mon) 20:00 After the performance

Playwriter : SAITO AYUMU / Director : Kim Gwangbo / Assistant Director : Kang Minyeong / Stage Director : OJAKI KANAME  
Lighting : Jeong Jaeseong / Sound : Kim Jinhui / Stage : ISAJI YUMIKO / Script manager : KIMURA NORIKO / Producer : HIRATA SHUJI  
Performer : Lee Seungju, Lee Dou, MIYATA KEIKO, TAKAKO MIKU, SATO KENICHI, KIMURA HIROTSUGU

■ 줄거리

홋카이도 삿포로의 변화가 스스키노 변두리의 한 동네. 거기 작은 식당에 일하면서 살고 있는 한국 젊은이와 주인, 그리고 이웃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사정을 가지고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에는 웃음과 활기가 가득하다.

초겨울, 한국에서 한 여자가 이사를 왔다. 그녀가 이사 온 날, 택배 아저씨가 게를 식당에 잘못 배달한 일로부터 '게 사건'이 벌어진다. 비싼 왕게를 빨리 찾아 고객에게 전해야 한다. 게는 어디에 갔을까? 혼자 걸어서 어디 갔을까? 아니면……

게를 추적하면서 진지한 이웃이 되어 가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이야기.

■ Synopsis

In a village near Susukino in Sapporo, Hokkaido, lives one young Korean restaurateur and her neighbors. The Susukino locals live from hand to mouth yet have a happy and energetic life.

One winter's day, a Korean woman is moving to the Susukino community when the 'crab incident' occurs. A delivery service man misplaces an expensive king crab and must quickly replace it in order to fulfill the order. Where could those ten legs have carried it?

<A Crab, a Woman and her Japanese Neighbor> is the charming story of becoming true neighbors, constructing new alliances between old rivals, and forming bonds that transcends nationality when in pursuit of a crab.

■ 언론 보도

등장인물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시샘, 삐뚤어진 마음이었던 추악한 감정들과 때로는 초조한 모습들까지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들 모두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마음까지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 2009년 11월 30일 홋카이도 신문 석간  
"일본과 한국의 벽을 허무는 친절한 사람들" 기사 中

■ PRESS REVIEW

登場人物たちは経済的に貧しい。ねたみ、ひがみといった醜い感情や、イライラとも無縁ではない。それでも皆、人に優しい。心までは貧しくないからだ。

- 2009년 11월 30일 北海道新聞 夕刊  
"日韓の「壁」 破る優しい人々" 中





#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몽(夢)

## Dream

한국

예술무대 산

5월 8일(일) ~ 9일(월)  
일~월 16:00

경성대 예노소극장

55분  
12세 이상

Korea

Art Stage San

May 8th (Sun) 16:00  
9th (Mon) 16:00

Yeno Hall,  
Kyungsoong University

55MIN  
Rated PG - 11



꿈을 잃어가는 청춘들에게 바치는 판타지 인형극!  
나의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

보험외판원인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진정한 꿈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작품은 이 사내가 어느 날 하루 동안의 환상을 겪으면서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과정을 <도량선비와 개울각사> 설화를 극 안으로 끌어들이며 표현해 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과연 행복한가, 자신이 꿈꿔왔던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몽(夢)>은 인형극에서 흔히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인형의 등장과 조명과 소품만으로도 극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높은 완성도의 무대 구성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9일 (월) 16시 공연 후

작 : 김숙중 / 연출 : 조현산 / 프로듀서, 무대 : 오정석 / 미술감독 : 류지연 / 음악감독 : 김영준 / 작곡 : 박인수  
기획 : 어영미 / 디자인 : 주지나 / 조명감독 : 김건영 / 음향 : 표인철  
출연 : 조현산, 류지연, 이동준, 최윤형, 김양희

##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몽(夢)

Dream

For youth who've abandoned your dreams: puppet show, <Dream> is for you!  
What is my real dream?

Our protagonist grows to achieve his dream of becoming an insurance salesman, but soon after trades his original aim for want of developing a good reputation and advancing to a higher position. Blinded by ambition, will he ever rediscover the pure intentions of his original dream?

Dreams are often betrayed by ambition; over time, society's definition of success replaces our own. We work eagerly to acquire property, position and reputation. After attaining these benchmarks of success, are we really happier than before? The gorgeous creation of <Dream>'s surreal fairy tale gives a moment to pause and raise the question: Is this really the life that I wanted?

■ Q&A Session : May 9th (Mon) 16:00 After the performance

Playwriter : Kim Sukjong / Director : Jo Hyunsan / Producer & Stage : Oh Jounghuk / Art Director : Ru Jiyun  
Music Director : Kim Yeongjun / Composer : Park Insu / General Manager : Ue Youngme / Design : Ju Jina  
Lighting Director : Kim Keonyoung / Sound : Pio Incheol  
Performer : Jo Hyunsan, Ru Jiyun, Lee Dongjun, Choi Yunhyoung, Kim Yanghee



■ 작품의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은 언제나 만원이다. 수많은 학원들은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룬다. 모두들 지나치게 열심히 산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마치 사전 속 대답처럼 같은 대답을 한다.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란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꿈이란 무엇일까?

“꿈”의 사전적 의미는

1.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
2.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3. 실현된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우리들의 꿈은 어느새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에 비춰진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꿈은 나 아닌 여러 사람의 눈에 비춰진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나여야 한다.

■ Motive

“Dream” can be defined as...

1. A dream is an imaginary series of events that you experience in your mind while you are asleep.
2. A situation or events that you really wanted to happen.
3. A situation or event that does not seem real, as within a dream, especially if it is very strange or unpleasant.

Dreams are often betrayed by ambition; at some point, we become fixated on the vain expectations of others and what the masses define as success. We work eagerly to acquire property, position and reputation. After attaining these benchmarks of success, are we really happier than before? Can we honestly say we have accomplished our dream? The most basic of dreams is being able to quiet the noise of others, and face what is reflected in the mirror. <Dream> tells of an insurance salesman that dared to give in to fantasy. Because of it, he was able to uncover his true dream. Often, we go through the motions of carrying out our busy and exhaustive lives on autopilot. This puppet show gives a moment to pause and raise the question: **Is this really the life that I wanted?**



##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 Love Game

한국  
극단 연5월 8일(일)~9일(월)  
일~월 20: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70분  
12세 이상

Korea

Theater Group YEAN

May 8th (Sun) 20:00  
9th (Mon) 20:00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70MIN  
Rated PG - 11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동네 처녀, 총각들의 밀고 당기기.  
춤, 텀블링, 타악기 연주 등을 가미한 언버벌 Love Comedy!

“물 뜨러 왔니?” “NO, 네 마음 뜨러 왔다!”

마을에 하나 밖에 없는 우물가에 물을 길기 위해 동네 처녀, 총각들이 모여든다.

먼저 물을 길기 위한 자리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경계하지만 그들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서로 엇갈린 사랑은 운명처럼 꼬여 가면서 질투심만 키우게 되고 주인 없는 우물을 향해 결국 몸을 던지는데...

■ 관객과의 대화 : 5월 8일 (일) 20시 공연 후

연출 : 오정국 / 무용 : 이혜진 / 타악 : 정재욱 / 음악 : 전현미 / 의상 : 김윤정 / 무대 : 황경호 / 조명 : 장영섭  
출연 : 하현관, 김학준, 오영섭, 김상균, 허철녕, 이수정, 서해미

##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 Love Game

<Love Game> is a nonverbal romantic comedy with dancing,  
tumbling and the joyful sounds of various musical instruments.

“What are you here for?” “I am here for your heart.”

The single men and women gather at the local water well. Pretending to fetch water, they play a love game trying to fetch the attention of each other. They should be gathering necessities, yet what is more necessary than attracting the opposite sex in pursuit of love? Vying for the best spot around the well, their gazes tense trying to keep their true feelings hidden. Their unexpressed emotions breed hatred and jealousy. Buckling under this unbearable weight, the jilted lovers seek relief at the bottom of the well...

■ Q&A Session : May 8th (Sun) 20:00 After the performance

Director : Oh Jungkuk / Choreographer : Lee Hyejin / Percussionist : Jung Jaewook / Sound : Jeon Hyunmi  
Costume : Kim Yunjung / Stage : Hwang Kyoungho / Lighting : Jang Youngsup  
Performer : Ha Hyunkwan, Kim Hak joon, Oh Youngsup, Kim Sangkyun, Heo Chulnyoung, Lee Soojung, Seo Haemi



# 돌고 돌아가는 길

## The Longest Way Around

한국

극단 자유바다

5월 5일(목) ~ 6일(금)  
목~금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0분  
12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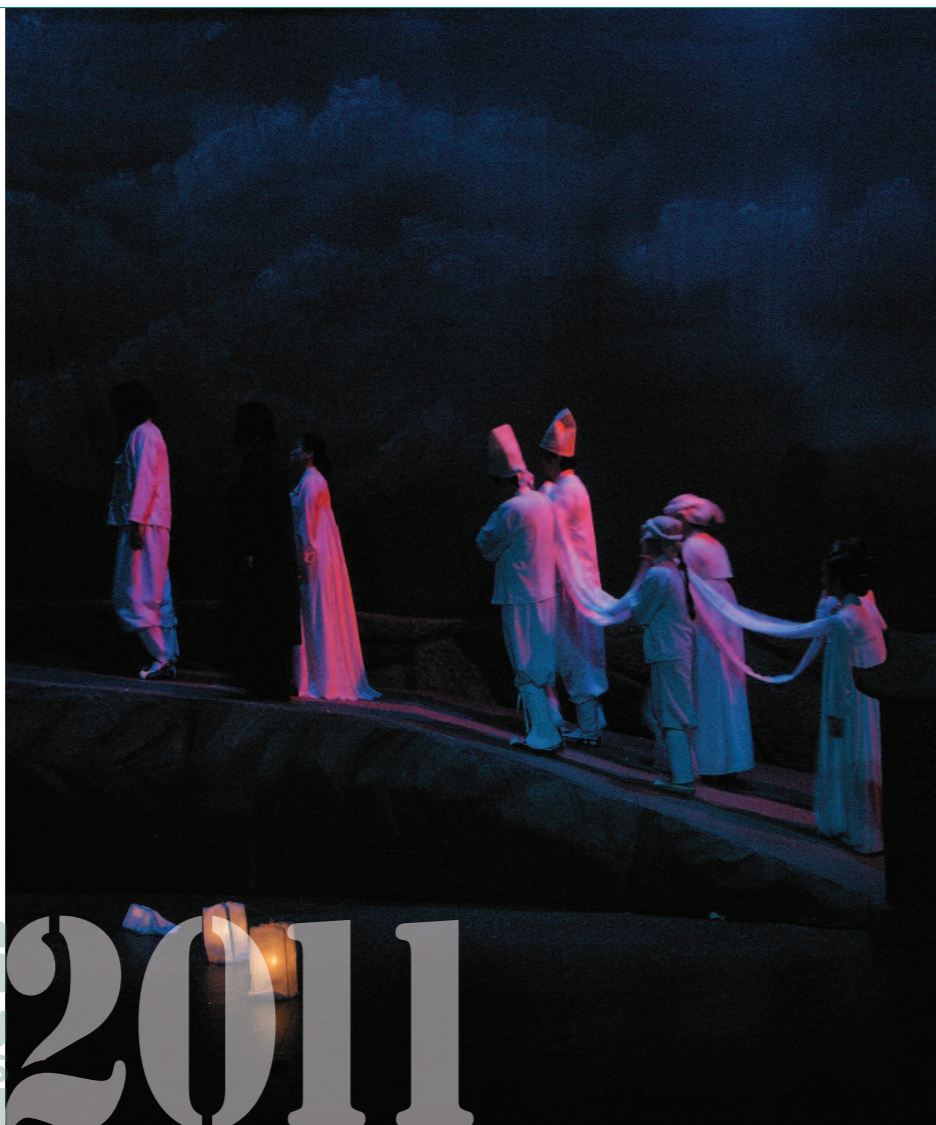
Korea

Freesea

May 5th (Thu) 18:00  
6th (Fri) 18:00

Medium Hall,  
Busan Cultural Center

100MIN  
Rated PG - 11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 2011년 부산연극제 대상작!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일월산 리조트 건립공사 중에 비석과 유물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된다. 일월산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근거지였다. 발견된 비석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그때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작품<돌고 돌아가는 길>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여 친일파 집안과 의병장 가문이 서로 대립하는 내용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와 과거를 동일선상에서 재현하였고 과거 인물과 현재 인물의 동질성,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데자뷰 등을 통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과거를 말하고자 한다.

#### ■ 관객과의 대화 : 5월 6일 (금) 18시 공연 후

작연출 : 정경환 / 대표 : 강혜란 / 작곡 및 음악감독 : 박철홍 / 안무 : 김순선  
조명 : 조훈상 / 음향 : 김정원 / 분장 : 허종오 / 기획 : 고영애 / 홍보 : 박지영  
출연 : 김상훈, 유상훈, 이동희, 양성우, 문지연, 송민정, 권혁철, 권혁진, 이남정, 김예린, 김보경, 심인보

# 돌고 돌아가는 길

## The Longest Way Around

### 2011 the winner of Busan Theater Festival!

Misgivings of the past are mirrored in the transgressions of the present.

During the construction of a resort on Ilwol Mountain, a headstone and other artifacts are discovered and the construction comes to a halt. These artifacts are the first parts of the great history of Ilwol Mountain told in <The Longest Way Around>

Ilwol Mountain was the site of a Japanese invasion in the past. Flashing back to that time, two families are shown at war against each other: one defends Korea and the other, Japan.

<The Longest Way Around> binds the same conflict of past and present and it criticizes modern society's system of power, not earned, but rather inherited by birthright into society's elite. However, it also shows that this inequality is not limited to today; moreover, it is merely a continuation of the past. More than the setting of Ilwol Mountain remains unchanged- times may progress, but names, locations and conflicts remain the same. Whether by force or coincidence, the template of the present seems established in the past.

#### ■ Q&A Session : May 6th (Fri) 18:00 After the performance

Director&Playwriter : Chung Kyunghwan / CEO : Kang Hyeran / Sound Director : Park Chulhong / Choreographer : Kim Soonsun  
Lighting : Cho Hunsang / Sound : Kim Jungwon / Make-up Designer : Heo Jongoh / General Manager : Ko Youngae / PR Manager : Park Jiyoung  
Performer : Kim Sanghoon, You Sanghul, Lee Donghee, Yang Seoungwoo, Moon Jiyeon, Song Minjoung, Kweon Hyukcheol, Kwon Hyoukjin, Lee Namjung, Kim Yerin, Kim Bo kyoung, Shim Inbo

# 들판에서

## Brothers

한국  
극단 맥

5월 5일(목)~6일(금)  
목~금 20:00

용천지랄소극장  
60분  
12세 이상

Korea  
MACTHEATER

May 5th (Thu) 20:00  
6th (Fri) 20:00

Culture Alley  
Yongcheon Jiral Theater

60MIN  
Rated PG - 11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 형제들의 우애를 통해 말하는 남북 분단의 아픔과 동질성!

들판이라는 공간에서 평화스럽게 살아가던 형제가 측량 기사의 핏에 빠져서 벽을 쌓게 되고 우애를 잃게 되지만, 민들레꽃을 보면서 다정했던 옛 시절을 회상하여 마침내 벽을 허물게 된다는 내용의 우화극(寓話劇)이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남북의 분단이라는 오늘날의 현실과 남북통일이라는 숨겨진 주제를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형과 아우, 측량 기사 등의 등장인물부터 민들레꽃, 벽, 밧줄, 총 등의 소재가 전부 상징성을 띠고 있는 작품으로 날씨 변화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며, 간결하고 압축적인 대화를 통하여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6일 (금) 20시 공연 후

연출 : 이정남 / 작 : 이강백 / 안무 : 홍순아 / 음악 : 김재욱  
출연 : 심미란, 허정현, 강숙하, 김수철

들판에서  
Brothers

The tragic division of Korea comes to life in the broken bond of two brothers. The conflict, confrontation and reunion of these brothers symbolize the reality of national division and hope of reunification.

<Brothers> is symbolic of the current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hope of reunification that can't be erased. This parable illustrates the imperatives of brotherhood and recovering unity. Though driven apart by the lies of the surveyor, the inherent commitment of a shared history is indivisible. Symbolism tells the story of brothers. There are the physical symbols of dandelions, the wall, rope, and gun; weather acts as a signifier of changing time. The characters personify the theme through their roles, through their words, and perhaps most significant, through the implications of what goes unsaid.

■ Q&A Session : May 6th (Fri) 20:00 After the performance

Director : Lee Jungnam / Playwriter : Lee Kangbaek / Choreographer : Hong Soona / Composer : Kim Jaeok  
Performer : Sim Miran, Hur Junghyun, Kang Sookha, Kim Soochul



# 자-살+자

## Comedy Suicide

한국

극단 사계

5월 8일(일)~9일(월)  
일~월 20:00

용천지랄소극장  
60분  
12세 이상

Korea

Theater Group Four Season

May 8th (Sun) 20:00  
9th (Mon) 20:00

Culture Alley  
Yongcheon Jiral Theater  
60MIN  
Rated PG - 11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 마술과 마임, 그리고 춤이 어우러진 코믹 드라마 고귀한 죽음보다 평범한 인생이 더 아름답다?!

삶을 비판하여 자살을 시도하던 주인공 마술사는 고귀한 죽음을 선사하는 클럽의 회장으로부터 고결한 죽음의 업적에 관하여 알게 된다. 자신도 어떤 영웅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나리오를 짠다. 참여한 멤버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들의 자살 예산론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는데... 주인공 마술사가 고귀한 죽음을 선사하는 클럽의 멤버들과 함께 죽음을 위한 시나리오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이야기를 통해 세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관객들에게 “고귀한 죽음보다 평범한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8일 (일) 20시 공연 후

극작 : 신슬기 / 연출 : 김만중 / 협력연출 : 황윤동 / 액팅코치 : 고재경 / 의상 : 임선미  
조명 : 배윤희, 김정환 / 음향 : 홍중화, 김선정 / 음향엔지니어 : 김민규 / 기획 : 황미애  
출연 : 김종석, 황은주, 김재경, 임홍진

## 자-살+자

### Comedy Suicide

Comedy/drama that mingles dance, mime, and magic!  
Korea's suicide rate ranks number one in the world. <Comedy Suicide> aims to tell Korea and Korean audiences that ordinary life is more beautiful than a noble death.

A magician sets out to grab dignity in death where it has escaped him in life. He begins scripting his suicide and seeks out the assistance of a “suicide club” to make it happen. His “suicide club” isn’t exactly what he thought and wanted, but turn out to be everything he needed. This peculiar story delivers suicide with magic, mime and dance. The result is a delightful comedy/drama that leaves us with food for thought.

■ Q&A Session : May 8th (Sun) 20:00 After the performance

Playwriter : Shin Seulgi / Director : Kim Manjung / Co-Director : Hwang Yundong / acting Director : Go Jaegyung  
Costume Designer : Lim Seonmi / Lighting : Bae Yunhui, Kim Jeonghwan / Sound : Hong Jonghwa, Kim Seonjeong  
Sound Engineer : Kim Mingyu / General Manager : Hwang Miae  
Performer : Kim Jongseok, Hwang Eunju, Kim Jaeyeong, Lim Hongjin